



# 의정부주보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희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 103위 성인

### 성녀 김효임 골롬바 (1814-1839)



동정 순교자 김효임은 서울 근교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그의 가족은 모두 입교하여 유방제(劉方濟) 신부에게 세례성사를 받았다. 그는 두 여동생과 함께 동정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1839년 4월, 김효임은 경기도 고양군 용머리(현 고양시 용두동)에서 동생 김효주와 함께 체포되었다. 두 자매는 포청에서 이른바 학춤이라는 혹형과 함께 뜨겁게 달군 쇠붙이로 열세 군데나 지져지는 고문을 받았다. 한 번은 옷이 벗겨진 채 남자 죄수 방에 넣어지기도 했는데, 갑자기 두 자매의 몸에서 신비스러운 힘이 나와 남자 죄수들이 그들을 범할 수 없었다고 한다. 김효임은 형조판서의 신문에서도 영리하고 겸손하게 대답하여 감동을 주었다. 이후 5개월 동안 옥에서 병과 싸운 그는 9월 26일, 8명의 교우와 함께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고 26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성화\_김형주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3

##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 성서 주간

소리 주보 ▶



**입당송** 묵시 5,12; 1,6 참조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제1독서** 예제 34,11-12.15-17

**화답송** 시편 23(22),1-2 7.2ㄴ-3.5.6(◎1)

-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네. ◎
-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고,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

○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

**제2독서** 1코린 15,20-26.28

**복음 환호송** 마르 11,9.10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

**복음** 마태 25,31-46

**영성체송** 시편 29(28),10-11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임금과 목자



오늘날 양과 염소를 돌보는 목자

우리나라에서는 빈 들에서 짐승을 돌보는 목자를 만나기가 어렵지만, 영토의 절반이 광야인 이스라엘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부터 목자들은 농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광야처럼 인적 드문 장소에서 양과 염소들을 방목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임금을 이런 목자에 비유하는 대목이 종종 나옵니다. 과거 우리도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아치를 ‘목민관’(牧民官)이라 하였고, 정약용 선생은 그런 벼슬아치들이 지켜야 할 지침을 ‘목민심서’(牧民心書)라는 책에 정리하였지요.

옛 이스라엘이 속했던 고대 근동에서 이 비유가 쓰인 건, 목초지와 샘으로 양 떼를 이끌고 맹수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목자의 역할이 자기 백성을 잘 먹이고 적국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임금의 그것과 비슷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18세기 함무라비 법전에는 ‘엔탈’이라는 신이 함무라비를 목자로 세웠다는 내용이 서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임금 없는 민족은 목자 없는 양 떼와 같다.”는 속담도 바빌론에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창조주로 여긴 ‘마르둑’ 신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창조한 생명체, 머리 검은 자들을 목자처럼 이끄시기를”(『에누마 엘리쉬』 6,107). 이집트인들도 파라오를 목자로 찬양하였으며, 신도 목자에 비유되곤 하였습니다. 성경에도 하느님을 목자에 비유하는 대목이 여러 번 나옵니다(시편 23,1 등).

그렇다고 목자가 모두 선한 건 아니었습니다. 요한 10,12-13에서는 돈에만 관심 있는 삿꾼일 경우 위협에 닥치면 양

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꼬집습니다. 구약 시대 예언서인 에제 34,1-10에서도 불성실한 이스라엘 임금들을 이런 목자에 견주며 꾸짖은 바 있는데요, 그들은 백성이 곳곳에서 착취당해 터전을 잃고 헤매는데도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아오는 건 목자의 기본 임무지만, 그들은 오히려 ‘주인’의 허락도 없이 백성의 등골을 빼며 증처럼 부릴 뿐이었습니다. 지도층의 이런 악행이 내적 붕괴를 유발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남북 왕국은 이민족의 침공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이에 에제 34,11-16에서는 제 이익에만 관심 쏟는 삿꾼 대신 하느님께서 직접 참된 목자로서 당신 백성을 모아 고향으로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선언합니다.

에제키엘이 전한 신탁은 이후 요한 10,7-39에 반영됩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요한 10,8) 하신 말씀은 옛 이스라엘 임금을 악한 목자에 빗댄 에제 34,1-10을 떠올려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본인을 착한 목자에 비유하신 말씀(요한 10,14-15)은 하느님께서 좋은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주실 거라 예고한 에제 34,11-16을 상기시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여 그분께 돌을 던지려고 하였지요(요한 10,31). 이런 사실을 생각하며 광야의 양 떼를 보면, 목숨까지 바쳐 양을 지키고 사랑한 목자 예수님께 새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운 암운(暗雲)들’ ①  
-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의 부재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과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회칙 「모든 형제들」은 ‘불충분하게 보편적인 인권들’에 이어 ‘다툼(분쟁)과 두려움’(25-27항)을 오늘날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의 부재’를 보여주는 표지들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세계대전을 “세계 여러 나라가 관여하는 큰 규모의 전쟁”이라 하고, 특히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은 “세계 경제 공황 후, 파시즘 체제에 있던 독일·이탈리아·일본 등의 군국주의 나라와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연합국 사이에 일어난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칙은 오늘날 인류가 “여기저기 때때로 발생하는” ‘산발성(散發性) 제3차 세계대전’을 겪고 있다고 진단합니다(25, 259항 참조). 대중매체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면전과 올해 이스라엘-하마스 전면전을 속보로 알렸는데, 사실 두 지역은 오랜 기간 무력 분쟁을 겪던 곳입니다. 이번 원고를 준비하면서 ‘진행 중인 군사 분쟁 목록’을 검색해보니 이 지면에 소개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회칙은 폭력의 정세(분쟁)들이 흔해졌으며, 그래서 마치 일상사처럼 되어 놀랄 만한 일도 아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회칙은 이런 폭력의 정세들을 여러 관점에서 고발합니다. 첫째, 인간 존엄의 관점에서, 전쟁과 테러리즘 그리고 인

종적 종교적 박해는 “인간 존엄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입니다. 둘째, 진실의 관점에서, 이런 폭력의 정세가 때로 특정 이해관계, 주로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곤 합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무기 수출의 기회로 보거나, 과거 미국-이라크 전쟁과 관련해서는 전후 복구 참여로 얻게 될 이익을 전망하는 대중매체의 보도 태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날의 전쟁이 ‘상업 전쟁’(commercial war)으로 보인다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동선의 관점에서, 모든 전쟁은 “형제애(혈육 관계)를 향한 인간 가족의 내재적 소명(공동선을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침해합니다. 한국전쟁이 남과 북 사이의 뿌리 깊은 “불신을 낳아” 저마다 “자기들의 안전지대로 물러나서”(26항) 오랫동안 적대적으로 대립하고 부정하는 형국은 하나의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칙은 정신 구조의 관점에서, 폭력적 정세는 상대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을 퍼뜨려 스스로 장벽을 높게 쌓아 그 안에서만 안전을 보장하려는 기이한 모순에 갇히게 한다고 고발합니다. 마침내 그 장벽 너머의 사람들·세계·문화는 위협적 존재, 곧 두려움과 불신의 대상이 되어 ‘모든 사람을 위한 계획’에서 배제되고 맙니다. ☹️



## 성당 지붕

이현주 아가다 | 목동동 성당

난 종교가 없었다. 지난 20여 년간 그렇게 생각해 왔다. 중학생 때 할머니 손에 이끌려 가족을 대표하여 성당을 다니긴 했다. ‘아가다’라는 세례명을 얻고 성당활동을 활발히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나를 앉혀두고 통보했다. 엄마와 이혼할 것이며, 이혼과 동시에 우리는 새어머니 집에서 살 것이라고. 이혼과 재혼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하루아침에 낯선 동네에 있는 새어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아버지에게 순응하는 게 당연했던 나는 싫다는 소리 한번 못했다. 숨죽인 채 어떻게든 살아내는 것에만 집중했다. 내 안식처였던 본당과 갑작스레 헤어지면서 종교를 향한 마음도 닫았다. 그땐 무엇에게도 마음을 주기 싫었다.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파주 운정으로 이사를 왔다. 날 사랑하는 남편과 강아지 같은 아이 둘이 내 곁에 있으니 이 정도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이었다. 집 앞 공원 나무들 사이로 뾰족한 지붕이 보이기 시작했다. 성당 지붕이었다. 이사 온 아파트 바로 앞에 성당이 지어진 것이다. 그 앞을 산책하고, 출퇴근하면서 힐끔힐끔 성당 지붕을 쳐다봤다. 괜히 지붕을 바라보고 싶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던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쳤다. ‘성당에 가고 싶다.’ 생각이 확고해지고 나서 남편에게 슬며시 마음을 말했다. 평생 종교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던 남편은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했다. “사실 나도 집 앞에 생긴 성당에 가보고 싶었어.”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가족 넷이 나란히 앉았다. 알 수 없는 전율이 흐르며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다. 무슨 감정인지 나도 알 수 없었다. 울음을 터트리지 않으려 간신히 참을 뿐이었다. 그렇게 첫 미사가 끝났다.

그로부터 우리 가족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정신없이 여정을 떠나는 사람들처럼 살았다. 아이들 먼저 유아세례를 받고, 남편과 나는 성전에서 관면혼배를 올렸다. 예비신자 교리반에 등록한 남편은 같은 해 12월 크리스마스 전날 ‘대건안드레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최근 우리 부부는 같이 견진성사까지 받았다. 이 모든 게 1년 안에 이루어졌다.

성당에 다니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 내 작은 일에도 축하한다며 손을 잡아 주시는 분들, 아침 미사를 오다니 장하다며 어깨를 토닥이시는 분들이 있었다. 구역 청소를 가도 장하다며 칭찬, 아이들과 손잡고 성당을 걷기만 해도 칭찬이다. 아빠보다도 아빠 같고 엄마보다도 엄마 같은 사랑을 성당에서 느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따스한 사랑이다. 나도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싶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 그 마음으로 지내다보니 성당의 영상 촬영과 편집, 구역의 반장, 현화회 일을 하게 됐다.

성당 지붕을 다시 올려다본다. 벚꽃들 사이로, 초록색 나뭇잎들 사이로, 노란 단풍들사이로, 소복이 덮인 눈 사이로 사계절 내내 날 지켜보던 성당 지붕. 이제는 안다. 그것이 길 잃은 어린양인 날 지긋이 바라보던 예수님이셨음을. 언제든 내게 오라고 하시며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던 품이었음을. ☺





## 교구장 동정

26(주일)	하느님 말씀 주일 미사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28(화)	교구청회의 - 교구청 회의실
	교구청 월례미사 - 주교좌 사적지 성당
	수품 예정자 면담 - 교구장 집무실
29(수)	대건카리타스 정기이사회 - 교구청 회의실
30(목)	하늘가족 위령미사 - 백석동 성당
12/3(주일)	건진성사 - 호평동 성당



## 교구 소식

### 의정부교구 제138차 ME 주말

일시 12/1(금)~3(주일) 장소 민족화해센터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2705-4636 의정부ME

### 〈꾸다〉 청소년 온라인 주보팀 6기 봉사자 모집

대상 청소년 온라인주보 제작을 함께 할 청소년 및 청소년부 교리교사  
활동 2024년 1월~7월 [약 7개월] 접수 11/26(주일)까지  
문의 031-850-1459 청소년부 / 카카오톡채널 [UJB청소년사목부] 1:1 채팅

신청 ▶



### 하느님의 종 황사영 알렉시오 시복을 위한 은혜의 밤

일시 12/9(토) 17시 1부- 한국순교성인·복자 호칭기도 (초 봉헌, 안수)  
장소 황사영순교순례지 묘역 (영성관) 2부- 황사영의 삶과 영성 특강  
문의 031-850-1498 순교자공경위원회 3부- 미사

### 청소년사목국 교리교사회 모집 - 2024년 활동

대상 현/전 어린이부·청소년부 교리교사 (신입 교리교사학교 수료자)  
활동 기도, 청소년사목국 교육 준비  
기간 2024년 1/1(월)~12/31(화), 1년 문의 031-850-1458~9 청소년사목국



### 갤러리 평화 전시 안내

황명숙 마리아 / 자연과 함께 세월을 물들이다 일시 11/18(토)~12/1(금) 10:30~17:30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안재선 제이슨 신부 일시 12/2(토)~15(금) 10:30~17:30  
문의 031-877-9153, 매주(월) 휴무 장소 갤러리 평화 (의정부시 시민로 35번길 36)

### [담화] 제39회 성서 주간 담화

“생명의 선물로서 희망을 간직하게 하시는 하느님 말씀(로마 5,5; 8,20 참조)을 선포하며”  
제39회 성서 주간을 맞이하여 주교회의 성서위원회에서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6지구 하루 피정**

일시: 11/27(월) 09:30~16:30, 백석동 성당 대성전  
강사: 김재덕 베드로 신부 (대전교구)  
미사: 이은형 디모테오 신부 (6지구장)  
문의: 010-5207-4419, 010-2994-2501

**성령회관 성전복구 1박2일**

일시: 12/1(금) 매주 금요일 철야기도  
진행: 고영민 안드레아(찬양팀)  
강사: 김중강 시몬 주교 특별미사  
김완식, 이상기, 엄정화  
장소: 청주교구 초정성령회관 (무료)  
문의: 043-213-9103, 010-4400-1344

**2024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일시: 1/19(금)~21(주일), 접수: 12/31(주일)까지  
장소: 살레시오회 관구관  
대상: 고1~35세 미만 남성  
문의: 010-6221-3520

**토마스 머튼 영성배우기 피정 - 성 베네딕도회**

일시: 2024년 매달 둘째(토) 10시~16시  
장소: 성 베네딕도회 서울 피정집(장충동)  
내용: 박재찬 신부의 머튼 영성 강의 [총 12회]  
문의: 010-8719-8608 (문자)

**청년 대림(하루) 피정 - 성심수녀회**

일시: 12/16(토) 10시~18시  
장소: 성심수녀회(용산구 원효로 19길 49)  
대상: 만 39세 이하 남, 녀 청년(미혼)  
회비: 1만원 / 문의: 010-2059-9633

**다락방 피정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초기교회공동체 체험을 통한 하느님 혼전 체험 피정  
일시: 12/8(금)~9(토) 15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접수: 12/3(주일)까지 [선착순 30명]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한마음 기도영성학교 초급 7기**

렉시오비나 묵상기도와 이나시오 관상기도 배움터  
일시: 12/15(금)~17(주일) 15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접수: 12/3(주일)까지 [선착순 30명]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주제: 영적쇄신으로 나아가는 길  
강사: 김영철 베드로 신부 (4지구장)  
일시: 12/1(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문의: 010-2127-0032

**교정사목위원회 후원자 월례미사**

일시: 11/29(수) 14시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대상: 교정사목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031-856-0213~5 (전화, 문자 모두 가능)

**이해인 수녀 대림 특강 - 호평동 성당**

주제: 사랑의 작은 길, 일상의 순례자  
일시: 12/10(주일) 교중미사 후 11:30  
장소: 호평동 성당 / 문의: 031-592-2554

**첫 토요일 신심 미사**

일시: 12/2(토) 09:20~12시 (10시 미사)  
장소: 일산 성당(고양시 일산서구 원일로57)  
문의: 010-6303-8515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12/8(금)~16(토), 1/5(금)~13(토)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이사야서II  
: 12/27(수)~29(금)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집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인천교구 지혜의샘(북방선교 기도공동체) 프로그램**

영성심리학으로 보는 인물 치유 특강  
일정: 매주일 14시~16시 (주일 미사)  
대림피정

일정: 12/6(수) 10시~17:30

1강: 정대영 신부 / 2강: 한영미 수산나 회장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지혜의샘 5층  
문의: 010-3248-9705

**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2023년 정기 세미나**

가정 안에서 신앙 전수 - 참 부모됨  
일시: 12/2(토) 14시  
장소: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문의: 02-460-7623

※ 주교회의 홈페이지 [www.cbck.or.kr](http://www.cbck.or.kr) 참고

**가톨릭교리신학원 2024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접수: 1/16(화)까지, 자세한 내용 [ci.catholic.ac.kr](http://ci.catholic.ac.kr)  
교리학과 - 주간, 주5일 / 종교학과 - 야간, 주4일  
2년 과정 - 선교사(교리교사)자격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1년 과정, 주3일 (신청 자격 확인)  
문의: 02-747-8501 가톨릭교리신학원

**제23회 가톨릭평화방송 겨울방학 영어캠프**

미국 LA영어캠프(3주, 1/10~30): 디즈니랜드, UC버클리+스탠포드+UCLA 재학생 간담회, 유니버설, 그랜드캐년,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사이판(4주, 1/10~2/3):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 마나가하섬, 정글투어 다양한 현지 액티비티  
문의: 02-734-0999, [cpbccamp.com](http://cpbccamp.com)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홈토킹!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수업: 일대일 수업(회화, 여행영어 등)  
혜택: 3회 무료 수업 제공  
문의: 053-593-1273 대구청소년수련원

**향심기도 소개강의**

일시: 12/7~28, 매주(목) 14시~15:30  
대상: 누구나 / 회비: 1만원 (4회)  
장소: 영성센터 A313호(구. 계성여고)  
문의: 010-4565-889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or.kr](http://www.holyfca.or.kr)

**성가 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시스띠나음악원

**요셉의원 직원 모집 - 서울 영등포 소재**

치위생사 또는 치과 전담 간호사(간호조무사)  
인원: 2명 (파트타임 지원 가능)  
문의: 02-2634-1760 요셉의원  
※ 홈페이지 [www.josephclinic.org](http://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한마음 대림특강**

제1강: 대림 시기에 대한 개괄적 교리  
제2강: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기  
일시: 12/5(화) 15시, 9(토) 17시, 12(화) 15시, 16(토) 17시  
장소: 한마음수련원 본관 / 회비: 총 4만원  
문의: 031-840-0018

**가좌동 성당(일산) 관리인 모집**

자격: 자동차 1종 보통 면허소지자  
서류: 교적서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개별 통보/ 제출 서류 반환 불가  
문의: 031-923-2693 가좌동 성당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 채용**

분야: 활동운영팀  
업무: 청소년활동 지도  
접수: 1/12(금)까지  
※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hanmaum84.com](http://hanmaum84.com) 참고

한남성서연구소 창립 25주년 학술 발표회

“말씀의 육화와 성경의 올바른 해석”

발표자: 정태현 신부 외 7명

일시: 12/1(금) 10시~16:30 (참가비 없음)

장소: 신앙교육원(의정부시 신흥로 261)

문의: 031-846-3467 한남성서연구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모니카 성가대(교중) 단원 모집

대상: 의정부지역 거주 신자 (60세 이하)

성가대 경험자 우대

문의: 010-6802-8014 단장

진접 성당 지휘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교우, 지휘 경력자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주임신부님추천서

제출: 진접 성당 사무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 010-9393-0234 단장

양주백석 성당 사무직원 모집

대상: 세례 받은 교우

사무행정 / 회계업무 / PC사용 가능자

업무: 본당 사무, 회계, 각종 행사 지원,

본당 시설 관리 등

접수: 12/31(주일) 우체국 소인까지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양주백석 성당 지휘자 모집

대상: 음악 관련 전공자 또는 성가대(합창) 지휘

경험 있는 분 (우대)

서류: 봉사신청서(교구 홈페이지 다운로드),

교적사본

제출: 이메일, 우편, 방문 가능

접수: 12/31(주일) 까지

문의: 031-829-0490 양주백석 성당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안내 · 기타 ▶▶

제주면형의집 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연말연시: 12/29(금)~1/1(월) 눈꽃산행

자연순례: 12/15(금)~17(주일)

문의: 064-756-6009, 02-773-1463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22(월) 베트남 성지순례 5일

1/26(금) 일본 (나가사키 운젠 히라도) 4일

2/15(목)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2/19(월) 체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11일

4/1(월) 산티아고 도보 순례 118km 12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여행사 619호

※ 세부 일정은 www.catholictravel.co.kr 참조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월~금 (09시~17시) / 야간진료 (화 18시~20:30)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안칠라도미니그레고리오성가단 정기연주회

최초의 오페라 성녀 힐데가르트의 덕행별곡

일시: 12/9(토) 17:30

장소: 참회와 속죄의 성당

문의: 010-7225-9734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운영 양로원 기금

가격: 된장(1kg) 2만원, 청국장(500g) 1만원,

연잎밥 1만원 (택배 가능)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 모든 재료는 국내산으로 직접 제조

라파엘 해외성지순례

1/9(화) 이태리 순례 (10일 455만원)

2/19(월) 다낭 성지순례 (149만원)

3/18(월) 알프스와 중세수도원 (519만원)

4/5(금) 프랑스 성모성지순례 (529만원)

4/7(주일) 성모님 발현지 (469만원)

4/22(월) 산티아고 순례길과 포르투갈 (449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 여행사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4년 하반기 (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후 30년 연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문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자연순례: 12/16(토)~18(월), 3/1(금)~4(월) 추라도

연말연시: 12/30(토)~1/2(화) 해넘이, 해돋이

눈꽃산행: 1/6(토)~8(월), 1/12(금)~14(주일)

1/19(금)~21(주일), 1/27(토)~29(월)

2/3(토)~5(월), 2/14(수)~16(금)

접수: 064-796-4182, 02-773-1455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2/20(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35만원)

3/14(목) 프랑스 성모성지 및 수도원 순례(13일 560만원)

3/15(금) 이스라엘, 요르단(12일 550만원 KE)

4/10(수) 이태리 수도원 및 명소 탐방(13일 520만원 KE)

5/15(수) 스페인, 루르드, 파티마(13일 560만원 KE)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공연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특별콘서트

프랑스를 대표하는 아카펠라 소년합창단이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크리스마스 특별콘서트를 펼친다.

일시: 12/19(화) 19:30

좌석: R석 11만원 / S석 9만원 / A석 7만원 / B석 5만원 / C석 4만원

가톨릭신자 할인 10% , 초중고 학생 할인 15%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서울 서초구)

문의: 031-738-1492 (전화 예매시 10%할인)



성서

2023 성서주간 유튜브 강의



강의 : 이용권 신부 (원당 주임, 파리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11/26(주일) 아담 : 너 어디 있느냐?

11/27(월) 아브라함 : 떠나라

11/28(화) 모세 : 내 백성을 이끌어 내어라

11/29(수) 이사야 : 누구를 보낼 것인가?

11/30(목) 베드로 :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12/1(금) 바오로 :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12/2(토) 마리아 : 여인이시여

## 성경의 언어와 목록

성경은 크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나뉩니다. 그중 구약성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쓰였습니다. 아주 드물게 몇몇 내용은 아람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에즈 4,8-6,18; 7,12-26; 예레 10,11; 다니 2,4-7,28). 아람어는 바빌론 유배 이후 사용된 유다인의 구어(口語)로 히브리어의 방언입니다.

본래 고대 히브리어 본문에는 모음이 없었는데, 기원후 6세기경 유다인 성서학자(마소라 학자)들이 성경 본문의 상하 좌우와 글자의 안팎에 간단한 점과 부호를 찍어 거룩한 말씀을 손상하지 않고 모음과 악센트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소라 본문’(MT)이 탄생했는데, 이것이 현존하는 히브리어 성경 사본입니다.

한편, 이보다 앞선 기원전 3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구약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아리스테아의 편지>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6명씩 뽑힌 72명의 율법학자들이 72일 동안 오경을 번역하였는데, 각자의 번역이었음에도 오차 없이 같은 번역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오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을 ‘칠십인 역본’(LXX)이라고 부르는데, 이후 100여 년간 구약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그리스어로 번역되었고, 따라서 구약성경 전체의 그리스어 번역을 ‘칠십인 역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은 고전 그리스어가 사라진 후 통용되던, ‘공통적인 언어’라는 의미의 ‘코이네 그리스어’(κοινή διάλεκτος)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어 사본 ‘칠십인 역본’(LXX)에는 히브리어 사본 ‘마소라 본문’(MT)에 없는 몇 권의 그리스어 성경과 일부 본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분류 방법도 다릅니다. ‘칠십인 역본’과 ‘마소라 본문’의 차이는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성경 목록의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가톨릭은 칠십인 역본의 순서와 분류에 따르지만, 유다교와 개신교는 마소라 본문을 따르고, 정교회는 마소라 본문에 칠십인 역본 일부를 포함하였습니다.

	가톨릭 (칠십인 역본에 따라)	정교회	개신교 · 유다교
오경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동일	동일
역사서	여호수아기, 판관기, 룻기, 사무엘기 상·하권, 열왕기 상·하권, 역대기 상·하권, 에즈라기, 느헤미야기,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 마카베오기 상·하권	마카베오기 상·하권 빠짐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의 일부 (히브리어 성경에 없는 부분), 마카베오기 상·하권 빠짐
시서와 지혜서	욥기, 시편, 잠언, 코헬렛, 아가, 지혜서, 집회서	동일	지혜서, 집회서 빠짐
예언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애가, 바룩서, 예제키엘서,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드야서, 요나서, 미카서, 나훔서, 하바룩서, 스바니아서, 하끼아서, 즈카르야서, 말라키서	바룩서 빠짐	바룩서, 다니엘서의 일부 (아자르야의 기도, 세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뱀) 빠짐

따라서 가톨릭의 구약성경은 46권이며, 정교회는 43권, 개신교와 유다교는 39권이 됩니다. 신약성경은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모두 27권을 똑같이 인정합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h1>행 주 성 당</h1>  <p>성모몽소승천</p>	토 요 일	17:00 토요일 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11:00 교중미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화,수,목,금
sd.uca.or.kr/hjsd1909	홈 페이지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後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24일 (플로라): 정가영

■ 12월에 기억하여야 할 본당 선종 교우

이덕희, 조운봉, 허마리아, 최학성, 신양순, 유금출  
이인희, 김병주, 조아오스팅, 강금례, 홍도영, 전경덕  
선종한 교우를 위한 미사: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1시

**전례**

■ 12월 성시간

일 시: 12월 1일 금요일 오후 3시

■ 12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12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 전대사 미사

일 시: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는 행주 성당에서 미사 참석을 하시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학생 학비 후원 2차 헌금

오늘은 의정부교구 신학생들의 학비 후원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교중 미사 예물 봉헌

11월 26일	최성권(야고보), 김민숙(골롬바)
12월 03일	류병운(미카엘), 김인수(미카엘라)

**본당공지**

■ 12월 봉성체

일 시: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11월 연령회 월례회의

일 시: 11월 26일 일요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우리들의 정성 (11월 13일 ~11월 19일)**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1건	150,000원
주 일 헌 금		801,000원

■ 감사헌금

권혁초	100,000원	한동욱	300,000원
김종임	100,000원	왕진택	50,000원
이지원	300,000원	박광배	200,000원
이동준	100,000원		

**복음 말씀 -**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가를 것이다.